

## 1930년대 중반 박길룡의 기능주의 건축론과 경성건축 비평

Park Kilyong's Functionalist Theory of Architecture in the Mid-1930s  
and Critique of Gyeongseong (Seoul) Buildings

김 현 섭\*

Kim, Hyon-Sob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Abstract

This research aims to investigate Park Kilyong's architectural theory and critique of Gyeongseong (Seoul) buildings, expressed in his 'Overview of Modern Buildings in Gyeongseong' and 'Critique of Gyeongseong Buildings' (*Samcheolli*, Sept. and Oct. 1935); and 'Architectural Form of the 100% Function' and 'The Modern and Architecture (1)-(4)' (*Dong-A Daily*, 28 Jul. to 1 Aug. 1936). As a result, it is confirmed that Park had the functionalist theory of modern architecture, which suggests that Korean architects of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were accommodating the contemporary trend of world architecture. However, Park shows his fundamental limitations in the fact that the main content of his articles was a verbatim translation of two Japanese references (Kurata, 1927; Ishihara, 1929) without proper indications. Despite the limitations, his texts are still meaningful since he formed his own architectural theory on the basis of what he translated; and indeed his critique of Gyeongseong buildings, however simple, was based on the theory. This research makes a critical analysis of Park's functionalist theory from both the 1930s' and present points of view and compares his commentaries on Gyeongseong architecture with those by Ko Yu-seop (1932) and Hong Yunsick (1937), illustrating how Korea perceived architecture and modernism in 1930s.

주제어: 박길룡, 조선(한국) 건축가, 현대건축, 기능주의 건축론, 일제강점기, 1930년대, 경성(서울), 비평

Keywords: Park Kilyong, Korean (Joseon) Architects, Modern Architecture, Functionalist Theory (Functionalism), Japanese Colonial Period, 1930s, Gyeongseong (Seoul), Critique

## 1. 서론

한국 현대건축의 초기 모습을 규명하기 위한 여러 연구가 있었지만, 일제강점기 식민지 조선의 건축계가 당대 세계건축의 흐름을 어떻게 인식했는지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비교적 최근이야 시작된 것 같다. 1930년대 출판된 글을 바탕으로 고유섭, 박동진, 홍윤식 등의 서양 근대건축운동 인식을 고찰한 예가 이를 보여준다.<sup>1)</sup> (1930년대라는 시기도 흥미롭다. 주지하듯 서양 근

대건축운동은 이 시기 초엽 절정을 지나 그 범위를 확장하는 한편으로, 양식화 과정을 겪기도 한다.) 한국 미술사학의 태두 고유섭(1905~44)은 건축계의 인사로 보기는 어렵지만 그가 출판한 1931년 1월의 『東亞日報』 연재 「新興藝術, 特히 尖端을 가는 建築에 對하여」 및 1932년 12월 『新興』의 「露西亞의 建築」은 건축계에 잇따라 '현대 신흥건축'에 관한 글들의 신호탄이었다. 한국의 대표적 1세대 건축가 박동진(1899~1980)이 『東亞日報』에 1931년 3~4월 연재한 「우리 住宅에 對하여」는 「現代建築의 趨勢」라는 장을 포함했는데, 서양 근대건축운동에 관해 조선 건축계가 출판한 가장 이른 텍스트로 추정된다. 아르누보와 제체선 이후의 건축 경향을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러시아를 중심으로 간략히 서

\* Corresponding Author: archistory@korea.ac.kr

필자가 박길룡의 1935년 『三千里』 기고문과 이시하라 켄지의 『都市建築造形理論への考察』(1929)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각각 연구실 제작 이병현과 최성광을 통해서다. 둘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1) 김현섭, 「1930년대 초 고유섭의 '현대 신흥건축' 인식」, 『건축역사연구』 31권 6호, 2022.12, 47~58쪽; 김현섭·김제연, 「1930년대 박동

진과 홍윤식의 서양 근대건축운동 인식」, 『건축역사연구』 32권 1호, 2023.2, 21~34쪽.

술한 글이다. 그리고 1937년이 되면 미국 유학을 앞둔 건축학도 홍윤식(1912~??)이 「近代建築藝術思想의 動向」이라는 글을 잡지 『朝光』(1937.9)에 발표한다. 일간지보다 여유 있는 지면에 좀 더 적극적인 역사서술을 시도했는데, 영국의 공예운동으로부터 시작한 흐름이 여러 사조를 거쳐 ‘국제건축’으로 수렴하는 구도였다. 이들의 텍스트는 일제강점기의 식민지적 제약으로 인해 지식의 간접 수용 및 그에 대한 피상적 이해라는 시대적 한계를 분명히 노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 조선의 건축계가 합리주의와 기능주의에 근거한 서양건축의 최신 경향을 긍정적으로 인식했음을 보여준 점이 의미 있는데, 그런 인식은 개개인에게 내면화되는 동시에 어떤 식으로든 건축 실무에 반영되기 마련이다.

조선의 지식인이나 건축인들이 서양 근대건축운동에 관한 글을 1930년대 들어 출판한 상황이 건축가 박길룡(1898~1943)과도 당연히 무관치 않았다. 박동진보다 더 왕성히 활동했던, 조선 건축계의 리더 박길룡이 제약 속에서도 세계건축의 동향을 주시하며 자기 건축을 위한 발판으로 삼았음은 불문가지의 일이라 하겠다. 1930년대 중반이 되면 박길룡도 세계건축의 주요 흐름에 발맞춘 인식을 드러낸 글을 발표하며, 이를 바탕으로 경성의 건축에 대한 논평까지 내놓게 된다. 1935년 9월과 10월, 잡지 『三千里』에 출판한 「大京城의 近代建築物 展望」과 「大京城 蜚당 建築評」, 1936년 7월 말부터 『東亞日報』에 연달아 낸 「機能 100%의 建築形態」(7.28) 및 「現代와 建築」(4회 연재; 7.29~8.1)이 그것이다. 박길룡의 이 글들과 관련해서는 우선 두 가지를 먼저 인지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박길룡의 텍스트가 고유섭, 박동진, 홍윤식의 것과는 달리 역사서술의 성격보다는 이론적 성격이 더 강하다는 점이다.<sup>2)</sup> 요컨대 현대의 건축이 어떠한지, 한다는 당위성을 내포한 ‘건축론’이라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상기의 텍스트가 박길룡이 출판한 다수의 ‘주택개량론’ 관련 글에 묻혀 그간 그다지 조명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가 출판했던 단행본 『在來式 住家改善에 對하여』 1편(1933)과 2편(1937)이 단적으로 보여주듯 그의 ‘론’은 주로 재래의 조선주택을 어떻게 개량할까에 맞춰져 있었다.<sup>3)</sup> ‘주택개량론’도 ‘건

축론’의 중요한 일부지만 ‘건축론’은 주택이라는 특정 범위를 넘어 건축 전반을 포괄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다르다. 그런데 화신백화점(1935~37)으로 대표되는 박길룡 설계의 여러 비주거 건축물이 규모와 접근성, 기념비성 등으로 건축 논의의 손쉬운 대상이었기 때문에, 과연 그가 어떤 건축관 혹은 ‘건축론’을 가지고 실무에 임했는지는, 그리고 당시 조선에 세워지던 대표적 건축물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었는지는 흥미로운 관심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두 가지 맥락을 고려할 때, 박길룡의 상기 텍스트는 무척 독특하면서도 한국 현대건축 태동기의 양상을 조명하는 데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특히 박길룡의 건축론이 서양 근대건축론의 핵심에 놓인 ‘기능주의’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따라서 이 연구는 1930년대 중반 박길룡의 텍스트에 나타난 기능주의 건축론을 고찰하고, 그가 시도한 경성건축 비평의 양상을 살피는 것을 목표로 한다. 비록 그의 글도 지식의 간접 수용이라는 식민지적 한계가 뚜렷하지만, 그 한계 자체에 대한 직시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인정한 위에 획득할 수 있는 의의 또한 다양하리라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고의 방법론이 텍스트 분석에 주로 국한됨을 밝힌다. 연구의 초점 및 지면 관계상 박길룡의 건축론이 형성된 구체적 맥락, 그리고 그의 건축론과 실제 작품 사이의 관계 등에 대해서는 대체로 논외로 하겠다.<sup>4)</sup> 이 연구를 바탕으로 추후 더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 2. 1930년대 중반 박길룡의 건축론 텍스트

1930년대 중반 박길룡이 출판한 건축론 텍스트는 1935년 9월과 10월 『삼천리』에 발표한 글과 약 1년 뒤 『동아일보』에 발표한 글, 크기는 이렇게 둘로 나뉘 볼 수 있다. 실제 『삼천리』의 글 두 편은 제목이 다르지만 동일한 글의 전반부와 후반부이고, 『동아일보』 글의 경우 「기능 100%의 건축형태」는 네 번으로 나뉘 길게 연재할 「현대와 건축」의 초록과 같은 내용이어서 여기 종속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

2) 케이트 네스비트의 견해를 따르자면 ‘역사’가 어떤 사실관계에 ‘서술적’이라면, ‘이론’은 ‘규정적, 금지적, 확인적, 비판적’이다. Kate Nesbitt (ed), *Theorizing a New Agenda for Architecture: An Anthology of Architectural Theory 1965-1995*, New York,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96, pp. 16-17.

3) 박길룡이 1920년대 후반부터 세상을 떠나는 1943년까지 발표한 주택개량 관련 37건(연재물은 1건으로 간주)의 글 목록이 다음에 잘 정리돼 있다. 이경아, 『경성의 주택지』, 서울, 집, 2019, 80~81쪽.

4) 다만 그의 ‘기능주의’ 건축론에 내재된 객관성의 추구가 그가 참여했던 당대의 ‘과학운동’과 맥을 같이한다는 정도는 언급할만하다. 후자의 주제와 관련해서는 다음을 보시오. 우동선, 「과학운동과의 관련으로 본 박길룡의 주택개량론」,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7권 5호, 2001.5, 81~88쪽. 한편, 보화각(1937~38)의 건축가가 박길룡이라면 그의 기능주의 건축론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을 텐데, 이에 대해서는 더 검증이 필요한 것 같다. 김현섭, 「보화각의 건축가가 박길룡이 아니라면?」, 『SPACE』 662호, 2023.1, 118~125쪽.

는 「기능 100%의 건축형태」를 따로 떼어 독립된 글로 보고자 한다. 후술하겠지만 「현대와 건축」에 일본 선형 문헌의 그림자가 직접적으로 드리워진 반면, 「기능 100%의 건축형태」는 박길룡이 소화한 내용을 아주 간명하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결국 박길룡 건축론의 요체로 간주할 수 있는 까닭이다. 따라서 이번 장은 박길룡의 텍스트를 <표 1>처럼 셋으로 나누고, 각각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일차적으로 개괄하고자 한다. 물론 주요 관심사는 그의 건축론에 있고, 그것이 초보적이거나 어떻게 건축평으로 이어지는지에 있다.

표 1. 1935~36년 출판된 박길룡의 건축론 텍스트

출판매체	출판일시	글 제목	도판
삼천리	1935.9	대경성의 근대건축물 전망	세 컷
	1935.10	대경성 뿔딩 건축평	세 컷
동아일보	1936.7.28	기능 100%의 건축형태	-
동아일보	1936.7.29	현대와 건축 (1): 전문화하는 건축과학	-
	1936.7.30	현대와 건축 (2): 건축의 3요건	
	1936.7.31	현대와 건축 (3): 건축예술론 시비	
	1936.8.1	현대와 건축 (4): 경성 저명건축 비평	

2-1. 「大京城의 近代建築物 展望」(1935.9) 및 「大京城 뿔딩 建築評」(1935.10)

제목이 이미 암시하듯, 『삼천리』의 글 두 편은 경성의 대표적 건축물에 대한 평론을 목적으로 하되 그에 앞서 건축사를 결들인 당대의 건축론을 펼쳐낸 것이다. 편의상 「대경성 근대건축물 전망」을 「대경성 (상)」으로, 「대경성 뿔딩 건축평」은 「대경성 (하)」로 칭하자.



그림 1. 박길룡, 「大京城의 近代建築物 展望」 및 「大京城 뿔딩 建築評」, 『三千里』 (1935.9 및 1935.10)

(1) 「대경성 (상)」: 이 글은 “건축 발생의 동인” 가운데 “자연에 대한 인간 생존의 요구”를 강조하며 시작하는데, ‘건축미’는 “미학상 절대적 원칙”이 아닌 “[생활의] 진정한 요구의 표현으로 결정되는 것”이라는 입장이 피력된다. 자동차와 기차가 아름다운 이유다. 결국 글은 “양식”이라는 미로”를 방황했던 이전과 달리 “현금의 건축은 인간의 요구에로 그 형태를 정리하는 것”이라는 논점으로 모아진다. 이것이 ‘필연적 건축’이고, 르코르뷔지에와 그로피우스에게서 볼 수 있는 ‘합목적성의 건축’이라는 것이다.<sup>5)</sup> 하지만 “조선의 건축계를 전망하면 구태를 벗지 못하고 낭만적인 전통을 반복하는 경향이 농후”하다고 글을 맺으며, 「대경성 (하)」로 그 구체적 사례에 대한 평가가 이어질 것을 암시했다.

이 같은 논지 전개 중 존 러스킨과 오토 바그너의 건축론이 제시돼 눈길을 끈다. 러스킨의 ‘건축’과 ‘건물’ 구분이 ‘예술로서의 건축’에 대한 강조로 인한 ‘일상생활의 실용목적’의 경시를 낳았다고 이해했기 때문이다. 이는 ‘일반 주가’를 존중하지 않았던 과거 역사에 대한 비판적 입장으로 연계되는데, 박길룡의 주택(개량)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박동진과 홍윤식이 그랬듯 박길룡의 글에도 바그너는 ‘근대건축의 선구’로 다뤄지며, 특히 그의 건축론의 ‘목적 적응성’, ‘재료 적응성’, ‘경제적 구조’가 제시됐다. 그리고 여기서 발단이 된 오스트리아 제체션의 노력을 ‘합리주의인 동시에 기능주의다’라고 평한다. 이것이 전술했던 르코르뷔지에와 그로피우스의 ‘합목적성의 건축’으로 발현됐다는 맥락이다. 한편, 이 글은 세 컷의 도판을 포함했는데, 각각 미국의 마친루군, 고전부흥식 건물, 미끈한 곡면 파사드의 모던한 건물이다. 후자에는 ‘합리주의 건축’ 및 장식을 벗은 ‘나체의 건축’이라는 설명이 붙었다.<sup>6)</sup>

(2) 「대경성 (하)」: 다음으로 박길룡은 「대경성 (하)」 서두에서 “오래전부터 장안의 상공에 우뚝우뚝 높이 솟아있는 큰 건물들”과 “새로이 낙성되는 큰 건물들”에 대해 “생각에 떠오르는 대로, 붓대 닳는 대로 [...] 간단한 소감과 평”을 적겠다고 밝힌다. 그리고는 조선총독부를 필두로 25개 사례를 열거하며 각각에 대해 길고 짧게 논하는데,<sup>7)</sup> 주로 양식과 외관, 구조 등과 관련한 초

5) 출판된 텍스트는 ‘共同的性의 建築’으로 표기됐으나(133쪽) 본고는 이를 ‘目的性의 建築’의 오기로 본다(밑줄 필자 강조).

6) ‘나체의 건축’이라는 표현은 후술할 『都市建築造形理論への考察』(石原憲治, 1929)의 ‘裸體建築’(101쪽)에서 온 말로 보인다.

7) 거론된 순서로 건물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朝鮮總督府, 中央電話局, 簡易保險局, 朝鮮銀行, 貯蓄銀行, 殖産銀行, 朝鮮日報社, 東亞日報社, 梨花女子專門學校, 普成專門學校, 延熙專門學校, 耶蘇敎壇

보적 수준의 논평이다. 건물이 거론된 순서에도 특별한 논리가 없어, 그가 밝혔듯 “붓대 닳는 대로” 적어 내려간 게 아닌가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박길룡의 건축적 입장이 분명히 나타난다. ‘찌-맨-루네산쓰식’의 조선총독부가 “쓸데없는 장식”으로 “구조와 형식에 있어서 큰 모순”을 가졌다고 비판한 반면, “합리적인 구조와 양식”의 중앙전화국과 간이보험국을 “건축상의 일대 혁명”으로 높이 산 점에서 특히 그렇다. 자신이 설계한 한청빌딩에 대해서도 현대적, 진보적, 합리적 건축으로 평했는데, 화신빌딩[화신동관]에 대해서는 “루네산쓰식을 모방”한 “외관에 편중된 건축”으로 간주한 점이 눈에 띈다.<sup>8)</sup> 결론적으로 “외부 양식에 구속됨이 없이 각각 그 건물의 사무적 효능으로 보아서 가장 합리적”이어야 “가장 이상적인 진보적인 건축”이라는 맺음말은 「대경성 (상)」에서 서술했던 ‘합목적성의 건축’에 대한 지향을 보여준 것에 다름 아니다.

여기에도 「대경성 (상)」과 마찬가지로 건물 도판 셋이 삽입됐는데, 종로중앙기독교회관과 경성역은 본문이 거론한 사례이며 덕수궁 석조전은 그렇지 않다. 박길룡이 이상으로 삼은 합리적 건축의 도판은 ‘나체의 건축’으로 상편에 먼저 실린 셈이다.

2-2. 「機能 100%의 建築形態」(1936.7.28)

이 글은 당시 『동아일보』에 마련된 「나의 백일몽」이라는, 각계 인사들의 꿈에 대한 단상을 담는 꼭지에 실렸다.<sup>9)</sup> ‘백일몽’이 뜻하듯 실현이 불가하더라도 한번 그려보는 소망 혹은 ‘공상’의 글인 셈이다. 박길룡은 “현실과 거리가 있는 장래 도달점을 구체적으로 공상하여 본 일이 없다”며 글을 시작한다. 하지만 결국 “기능 100%의 구성형태를 공상한다”며, 이것이 공상이기보다

‘이상’이고, 실제 “건축의 진로일지 모른다”며 글을 맺었다. 그에게 ‘기능 100%’의 근거는 역시 ‘현대과학’에 발맞춘 자동차와 비행기의 정교한 구성에 있었다. (박길룡이 당시 발명학회에서 활동하는 등 ‘과학운동’에 적극적으로었음은 잘 알려진 일이다. 주4 참조.) 본고가 단출하나 이 글을 당시 박길룡 건축론의 요체로 보는 만큼, 결론부를 인용하자.

우리 生活의 直接用具인 住家建築도 그 構成方法을 自動車나 飛行機의 構成方法에서 暗示를 받은 構成形態, 모든 感傷의인 無用的 部分 生活用具로서 生活行動을 도리혀 制肘하는 病的 部分을 떠러버리고 機能 百 “파-센트”의 構成形態를 空想한다.

이것은 다 空想이라는 것 보다 理想이겠다. 이것은 나의 理想이라는 것보다 過言일지 모르나 建築의 進路 일지 모른다.



그림 2. 朴吉龍, 「機能 100%의 建築形態」, 『東亞日報』(1936.7.28)

2-3. 「現代와 建築」(1936.7.29~8.1)

「현대와 건축」은 「기능 100%의 건축형태」가 실린 다음 날부터 연재됐지만, 「현대와 건축」이라는 긴 글이 먼저 정리된 뒤 「기능 100%의 건축형태」라는 요점이 나왔을 것이다. 「현대와 건축」은 분량상 나흘에 걸쳐 나누어 실렸고 각각에 ‘전문화하는 건축과학’, ‘건축의 3요건’, ‘건축예술론 시비’, ‘경성 저명건축 비평’이라는 부제가 달렸다. 그러나 부제가 해당 내용을 꼭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만은 아닌데, 4회차가 특히 그렇다. 글 후반부가 ‘경성 저명건축 비평’이라는 독립된 핵심 내용을 담지만, 전반부야말로 「현대와 건축」 전체 글의 귀결이라 할 수 있는 기능주의에 근거한 형태 방법론, 말하자

뉝, 天主教堂, 鐘路中央基督會館, 長谷川町 YMCA, 三越百貨店, 日本生命뉝뉝, 千代田生命뉝뉝, 韓靑뉝뉝, 永保뉝뉝, 和信뉝뉝, 京城驛, 京城郵便局, 朝鮮호텔, 京城府民館.

8) 자신의 한청빌딩에 대해 긍정적으로 적으면서도 중앙전화국과 간이보험국만큼의 찬사를 보내지 않은 것은 한청빌딩(1934~35)에 여전히 엮보이는 장식적 뉝뉝스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화신빌딩에 명백한 역사주의는 스스로의 박한 평가를 야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경성 (하)」에 뒤이어 『삼천리』(1935.10)에 게재된 글이 리모델링된 화신동관에 관한 것임을 보면(一記者, 「새로落成된五層樓 和信百貨店求景記」, 142~144쪽), 여기서의 화신빌딩은 바로 이 리모델링된 화신동관을 지칭한 것이라 판단된다. 주지하듯 원래 동아백화점(1931, 박길룡)으로 건축된 이 건물은 화신백화점 동관으로 쓰이다가 1935년 화재로 그해 리모델링된다. 우리가 보통 일컫는 화신백화점(1935~37, 박길룡)은 서관 전소 후 신축한 신관이다. 이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는 『화신백화점: 사라진 종로의 랜드마크』(2021)를 보시오.

9) 예컨대 경성제대 피부과연구실의 정근양(1936.7.24)은 종합민립병원 설립에 대한 꿈을, 경성제대 이학부 출신으로 휘문고보에 재직하는 신건희(1936.8.6)는 이론물리학을 연구하고픈 꿈을 피력했다.

면 ‘기능주의 건축 형태론’을 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본 절에서는 편의상 그 회차 및 부제로 나누어 내용상의 요점을 개괄하고자 한다. 먼저 염두에 둘 바는 글 전체가 상당히 전문적인 서술을 피하는 가운데, 다소 간 논리 전개와 산만함과 부자연스러움을 종종 노출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는 기능주의적 형태론이라는 논점만큼은 명확히 보였다는 점 또한 인지하자.



그림 3. 朴吉龍, 「現代와 建築 (4): 京城 著名建築 批評」, 『東亞日報』 (1936.8.1)

(1) ‘전문화하는 건축과학’: 현대에는 ‘현대의 건축론’이 있음을 전제로 글이 시작된다. 그러면서 ‘구라타 치카타다(藏田周忠) 씨의 건축론의 일절(一節)을 소개’하겠다고 밝힌다. 구라타의 건축론이 자신의 생각과 다소 거리가 있지만 “현대 건축사조의 주류”라는 것이다. 하지만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그 소개에 해당하는지 명시되지 않은 채 글은 전개된다. (일본 건축가 구라타의 글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논하자.) 박길룡은 건축이 예술인지 아닌지의 논쟁과 무관하게 ‘철학적, 미학적’으로 건축의 ‘의미’를 고찰하는 것은 필연인데, 이제는 건축론의 기초가 ‘건축과학’이라 적는다. 그런데 “과학적 근거를 가진 건축론”은 법칙이 먼저 있고 그에 따라 건물이 지어진다는 선형적 연역론이 아닌 “귀납적으로 보는 경험론”이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건축의 과학적 이론은 상당히 전문화되어 몇몇 ‘법칙적 기준’을 갖게 됐음을 말하며, 다음 회로 그 서술을 넘겼다.

(2) ‘건축의 3요건’: 건축과학의 법칙적 기준은 ‘역학적’, ‘물리학적’, ‘형태학적’이라는 세 기준으로 범주화됐

다. 첫째, 역학적 기준은 ‘건축구조학적’ 체계의 ‘가구법’과 관련되며, 사실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다. 둘째, 물리학적 기준은 통계학, 경제학, 사회학의 연구 및 실험과 관련되는데, 건축의 물리적 사안에 대해 “구조학 이외의 숫자를 취급”하는 것이며, “건축의 실제적 기능”과 직결된다. 이 두 가지 기준이 건축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다루는 데에 반해, 셋째의 형태학적 기준은 ‘미학적’이고 ‘주관적’이다. 그런데 ‘건축미학’은 그 형태를 ‘객관적 견지’에서 분석해 ‘미’를 발견하는 학문이라는 것이다. 바로 이 ‘건축미학’, 즉 ‘형태학’이 성립돼야 ‘건축론’이 다루는 의미가 뚜렷해질 것이라 제시된다. 한편, 이 논의 가운데, 구조 및 기능을 ‘소극적으로’ 취급하는 것과 달리 “가구(架構) 그대로, 기능 그대로의 형태”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생각하는 것을 ‘적극적 건축’으로 여김은 눈여겨볼 만하다.<sup>10)</sup>

(3) ‘건축예술론 시비’: 글은 이어서 그간 ‘건축론의 골자’가 건축이 예술인지 아닌지에 있었다고 보고, ‘건축비예술론자’의 몰이해도 문제지만 ‘건축예술론자’는 너무 주관적이어서 건축기능의 실제와 무관한 ‘론’을 세워 문제라고 주장한다.<sup>11)</sup> 건축에는 “건축의 고유한 경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건축론’이 밝아온 세 단계를 서술한다. 요컨대, 먼저 ‘고고학적 건축관’은 문명진전으로 상실된 ‘자연’에 돌아가고자 하는 것인데, 그 ‘원시상태로의 환원’이 만족스럽지 않자 건축을 장식된 구조로 보는 ‘공예학적 건축관’이 나왔다. 이 둘이 함께 ‘복고주의’ 및 시대착오적 ‘부흥주의’로 발현됐다. 역사적 양식에서 벗어나 “과학적으로 그 기능에 충실하게 된 금일”에는 ‘사회학적 고찰’이 대두했다. 통계학, 경제학, 물리학, 생물학 등이 이론적 기반이다. 즉, 당시의 건축론은 ‘사회학적 고찰’의 단계에 있다는 것인데, 이는 전회차 건축과학의 세 가지 법칙적 기준 가운데 둘째의 ‘물리학적’ 기준에 우선 직결된다. 그러나, 논리전개가 모호하긴 하지만, 이 ‘사회학적 고찰’은 ‘역학적’ 기준뿐만 아니라 ‘형태학적’ 기준도 포괄한다고 하겠다. 건축미학과 형태학의 성립을 재촉하는 입장 및 구조·기

10) 더불어 눈여겨볼 점으로, 이 논의의 세 가지 기준 및 핵심어 ‘구조’, ‘기능’, ‘형태’가 원류를 따지자면 비트루비우스 건축론(*De architectura*, c. 25 BC)의 ‘firmitas’, ‘utilitas’, ‘venustas’로부터 파생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11) 주지하듯 1877년 조시아 콘더(Josiah Conder)의 도일 후 일본에 건축을 예술로 보는 경향이 뿌리내려가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사노 도시카타(佐野利器)의 내진구조 등 과학적 방법론이 대두됐는데, 1915년 사노에게 지도 받은 노다 도시히코(野田俊彦)가 동경제대 졸업논문 「철근콘크리트와 건축양식(鐵筋混凝土と建築様式)」에 근거한 ‘건축비예술론’을 발표해 일본 건축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藤森照信(1993) 및 Oshima(2009) 참조.

능·형태를 적극 아우르려는 ‘적극적 건축’의 입장을 고려하면 이해된다.

(4) ‘경성 저명건축 비평’: 마지막 4회차는 앞의 ‘사회학적 건축관[고찰]’을 ‘기능주의적 고찰’로 규정하며 시작하는데, 건축을 하나의 ‘유기체’로 보는 것이라 덧붙인다. 그리고는 “기능과 가구의 필연적 관계를 살려갈 형태” 및 “창조적 세계감정과 표현형식의 통유성”을 위한 건축미학을 앞으로의 과제로 설정한다. 이어 그 ‘형태’에 대한 ‘방법론’으로 ‘형태 그 자신으로써 생각하는 것’, ‘형태의 소박간명을 존중하는 것’, ‘강건한 표현을 사랑하는 것’, ‘동물인 것, 동적 표현에 향한 것’을 제시했다. 이 네 가지 방법론의 표제어는 (마지막의 ‘동물인 것’이라는 표현이 어색하지만) 자체로서 대체적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데, 뒤따른 각각에 대한 설명에 모호함이 없지 않으나 그로써 의미가 구체화된다. 예컨대 ‘형태 그 자신으로써 생각하는 것’은 기계에서 보듯 “기능[이] 가장 필연적으로 표현된 것”으로서 전체 논의의 핵심으로 여길 수 있으며, 이 글이 “가장 특이한 현대경향”으로 본 넷째 방법론은 “기계의 유기적 의미를 합하여 동적 표현을 찾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방법론이 ‘세계 공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충분한 이해를 얻지 못해 유감이라는 말로 단락이 맺어졌다.

한편, 4회차 글의 후반부는 지금까지 서술된 건축론에 덧붙여진 경성의 실제 건축물에 대한 평이다. 박길룡은 당대 경성의 저명 건축물을 통괄하며 “역사 기성양식의 구태”를 띤 것(조선은행, 총독관저 등)으로부터 여기서 완전히 벗어난 “경쾌한 형태”(중앙전화국, 간이보험과 등)에 이르기까지 네 단계로 나누어 분류했다. 1년 전 「대경성 빨당 건축평」에서 건물 사례를 아무 체계 없이 임의적으로 서술했던 것에 비하면 크게 진보한 방식이다. 박길룡의 경성건축 비평에 대해서는 4장에서 자세히 논하자. 다만 여기서 “허위의 구투를 완전하게 벗고 구조 기능을 따라 과학적으로 처리된 것이 유쾌”하다고 평한 최신 단계의 건물들을 앞서 서술한 기능주의 건축론과 연계시킬 수 있다는 정도만 인지해 두자.

### 3. 박길룡의 기능주의 건축론

#### 3-1. 기능주의로 귀결되는 박길룡의 건축론

지금까지 『삼천리』의 「대경성 (상)~(하)」, 『동아일보』의 「기능 100%의 건축형태」 및 「현대와 건축」을 개괄한 데에서 나타나듯, 1930년대 중반 박길룡의 건축론은 ‘기능주의’로 규정할 수 있다. 핵심 맥락에 따라 이를

종합해보자. 1935년의 「대경성 (상)~(하)」에는 ‘기능주의’라는 말이 적극 강조되기보다 ‘필연적 건축’과 ‘합목적성의 건축’이 결론적 핵심어로 제시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구에 더해 텍스트 전반이 강조하는 ‘생활의 요구’, ‘필요’, ‘실용목적’, ‘건축 본 목적’은 결국 기능주의를 시사한 것이라 하겠으며, 제체선을 “합리주의인 동시에 기능주의”로 표현한 것도 기능주의로의 지향을 나타낸 점이라 하겠다. 아무튼 1935년의 텍스트에는 명쾌하지는 않지만 기능주의가 주조로 제시됐음을 알 수 있는데, 1년 가까이 지난 뒤 「현대와 건축」에 와서는 말과 내용 모두에서 기능주의가 중추적 논점이었다. 구라타의 건축론이 얼마나 반영됐는지와 무관하게 말이다. 당대 건축론의 세 가지 기준 및 건축론이 밝아온 세 단계에 대한 긴 논의는 ‘사회학적 고찰’ 즉 ‘기능주의적 고찰’로 모아졌다. 그리고 그에 따라 제시된 네 가지 형태 방법론은 “가구 그대로, 기능 그대로의 형태”나 “기능과 가구의 필연적 관계를 살려갈 형태”로 포괄된다고 하겠는데,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라는 근대 기능주의 표어의 다른 말이다. 이런 입장을 박길룡은 “기능 100%의 건축형태”로 다시 표현했다.<sup>12)</sup> 「현대와 건축」에 하루 앞서 출판됐으나 그 글이 정리된 뒤 작성됐을 짧은 글 「기능 100%의 건축형태」에서다. 전술했듯 박길룡은 “기능 100%의 건축형태”가 건축의 ‘이상’임과 동시에 앞으로의 실제 ‘진로’일 수 있음을 제시했던 것이다. 요컨대, 1930년대 중반 박길룡의 건축론은 「대경성 (상)~(하)」, 「현대와 건축」, 「기능 100%의 건축형태」의 순서를 거쳐 기능주의로 귀결되며 명쾌해졌다고 하겠다.

이 같은 박길룡의 건축론은 박동진이 5년가량 앞선 1931년, 「현대건축의 추세」에서 선보인 개념으로부터의 큰 도약이다. 박동진의 텍스트가 당대 세계건축의 경향에 대해 조선 건축계에서 나온 가장 이른 글이었으리라는 점은 서론에서 언급했다. 그런데 이 글은 자체로서 초보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론보다는 역사서술의 성격을 띠는 글이어서 ‘건축론’의 관점에서는 빈약할 수밖에 없다. 비록 박동진이 여기서 바그너의 ‘필요’나 베를라헤의 ‘목적, 구조, 형태’를 내세웠고, 독일의 국제건축, 르코르뷔지에의 합리주의, 러시아 구성파와 연계된 구조주의 및 기능주의를 언급했지만 말이다.<sup>13)</sup> 1937년 홍윤식의 글 「근대건축예술사상의 동향」도 박동진의 경우와

12) 이 표현은 스승 루이스 설리번의 표어를 발전시켜 “형태와 기능은 하나다”라고 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수사와 맥이 같다 (Wright, 1939, p. 4).

13) 박동진, 「우리 住宅에 對하여 (3)~(5)」, 『東亞日報』, 1931.3.17~19.

마찬가지 맥락으로 이해된다. 이 글이 박동진의 것보다 6년여 후 나온 텍스트여서 서양 근대건축운동에 대해 훨씬 자세하게 서술할 수 있었고, 논의의 종착점인 국제 건축에 대해 ‘기능주의적, 합리주의적’ 입장을 강조했지만, 이론적 관점에서의 기능주의 고찰과는 거리가 멀다. 이 글이 박길룡의 텍스트 이후에 출판된 것이지만 그런 이론적 논의를 이어가지는 않았다. 글의 목적이 다르기도 하고, 홍윤식이 아직은 건축을 공부하는 학생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건축론을 펼치기에는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결국 1930년대 중반 박길룡의 텍스트에 나타난 기능주의 건축론은 일제강점기 조선의 건축계가 세계건축의 경향을 수용해 선보인 거의 유일한 건축이론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말할 수 있다.

### 3-2. 박길룡 텍스트의 한계 및 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길룡의 텍스트가 갖는 원천적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식민지적 제약 속에서 그의 텍스트가 일본을 통해 편집된 간접 지식에 근거했다는 점인데, 이로 말미암아 그의 건축론에 피상성이 뒤따르고 그 건축론의 형성에도 시간적 지체가 동반됐다. 이 같은 박길룡 텍스트의 근본적 한계에 대해 보다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현대와 건축」이 구라타 건축론의 ‘일부[一節]’를 소개한다는 표현에서 추측되는 것이상으로, 그의 글의 주요 부분은 일본의 선행문헌을 고스란히 발췌·번역한 것이다. 이런 한계는 고유섭에게서 명확히 본 바이고,<sup>14)</sup> 박동진과 홍윤식에게서도 짐작됐었는데,<sup>15)</sup> 박길룡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이다. 단문인 「기능 100%의 건축형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지만, 나머지 둘은 ‘건축론’ 파트 대부분을 선행 일본문헌에서 가져왔다. 그 상황을 간단히 살펴보자.

첫째, 「대경성(상)」의 건축론은 거의 모든 문장과 내용을 이시하라 켄지(石原憲治, 1895~1984)의 『都市建築造形理論への考察』(1929)에서 발췌했다. 구체적으로는, 글의 첫 문장인 “우리 인간이 지상을 가공하여 가는 그 동시에 우리 인간은 자연에 대한 신비를 느끼는 것이다”(129쪽)로부터 조선의 상황을 언급하는 마지막 파트 전 단락의 “이것이 즉 필연적 건축이다”(133쪽)까지

가 그렇다.<sup>16)</sup> 물론 발췌한 문장을 잇기 위해 어구를 조금씩 조정하기도 했고, 그 과정에서 일부는 의미가 생략되거나 재정리되기도 했지만,<sup>17)</sup> 텍스트의 대부분을 그대로 가져온 것은 당대의 시대적 한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시하라는 동경제대 출신의 도시계획학자이자 건축가이며 농민건축 연구로 박사를 받은 인물인데,<sup>18)</sup> 이 책은 직전 수년간 곳곳에 발표한 건축 및 도시 관련 논고를 모은 것이다. 책 전체에는, 서문이 말한 바, 과거의 양식이 아닌 ‘리얼리즘의 관점’에서 “건축의 본질을 검토”하고 ‘현대의 필연성’을 바탕으로 ‘건축의 필연주의’를 추구하는 저자의 입장이 관통한다. 박길룡이 발췌한 글은 이 책의 열 개 챕터 중 다섯째와 여섯째에 해당하는 「建築と哲學」 및 「必然の建築」에 속하는데, 2-1절에서 「대경성(상)」을 요약한 내용(‘생활의 요구’, ‘실용목적’, ‘필요’ 등)과 ‘필연적 건축’이라는 말이 나온 맥락이다. 그리고 박길룡의 텍스트가, 예컨대, 러스킨과 바그너의 특정 건축론을 (진자의 ‘건축’과 ‘건물’ 구분, 그리고 후자의 ‘목적 적응성’, ‘재료 적응성’, ‘경제적 구조’에 대한 강조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거론할 수 있었던 것도 이 선행문헌을 옮겼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로 보인다. 단, 박길룡은 이시하라에게 있었던 각각의 책 제목 『建築の七燈』과 『今日の建築藝術』까지는 제시하지 않았다.<sup>19)</sup> 앞서 언급한 의미 생략의 사례다.

둘째, 「현대와 건축」이 발췌·번역한 구라타의 텍스트는 『アルス建築大講座 第7卷』(1927)에 실린 「建築論」이다. 1회차 도입부에서 구라타를 언급한 바로 다음 문장인 “건축이 예술이냐, 예술이 아니냐 어느 편으로든지 [...]”부터 마지막 4회차 후반부의 경성건축을 논하는 과

16) 각각은 이시하라의 문장 “人間が地上に加工する事に於て [...] 神祕を感じたであらうと思ふ” 및 “必然の建築である”와 일치한다(54 및 96쪽).

17) 예컨대, “이것이 즉 필연적 건축이다”의 직전 문장 “현금의 건축은 인간의 요구에로 그 형태를 정리하는 것이다”는 이시하라의 문맥을 압축하며 박길룡이 단언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박길룡이 “필연적 건축이다”에 곧 이어 사용한 핵심어 ‘합목적성의 건축’이라는 말은 이시하라가 쓰지는 않았지만, “目的を最も合理的に” 등의 이시하라의 표현(99쪽)을 박길룡이 변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사실 ‘합목적성’은 고유섭이 참조했던 이타가키(1930)도 강조한 바다. 그리고 후술할 구라타의 「現代建築」(1935)도 합리주의 챕터에서 ‘건축의 합목적성’을 내세우는데(80쪽), 서양의 동향에 발맞춘 일본 내 건축론의 추이를 보여준다.

18) 石田頼房·昌子住江, 「石原憲治論」稿: 建築家·都市計畫家, 基督者石原憲治について, 『総合都市研究』 55号, 1995, 113~148.

19) 두 책의 원저는 『The Seven Lamps of Architecture』(John Ruskin, 1849)와 『Die Baukunst unserer Zeit』(Otto Wagner, 1914)이며, 이시하라가 언급한 내용은 각각의 첫 장과 결론에 나온다. 후자의 경우 『Moderne Architektur』(1896)의 네 번째 판인데, 이 넷째 판에 와서 서명이 바뀌고 내용이 증보됐으며, 맺음말(Schlusswort)에도 여기 거론된 요점이 삽입됐다.

14) 고유섭의 「신흥예술, 특히 첨단을 가는 건축에 대하여」(1931.1) 본론은 일본 평론가 이타가키 다카오(板垣鷹徳)의 『新しき藝術の獲得』(1930)의 일부 챕터를 그대로 번역한 것이다. 참고(2022) 참조.

15) 박동진(1931.3)에게는 모호했으나 홍윤식(1937.9)은 선행문헌을 조합한 흔적을 여럿 남겼다. 김현섭·김제연(2023) 참조. 실제 박동진과 홍윤식은 각각 『近代建築思潮』(藏田周忠, 1924), 『インターナショナル建築』(中尾保, 1930) 등에서 주요 내용을 발췌했다.

트 직전, 즉 형태에 관한 네 가지 방법론을 서술한 부분까지를 이 선행문헌에서 따온 것이다.<sup>20)</sup> 구라타 치카타(1895~1966)는 1922년부터 일본 분리파(分離派, 1920~28)에 참여했고 1930년 봄부터 1년여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 현지를 견학했던 유력 건축가로서, 당대 서구 신건축의 흐름을 일본에 설파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편저서 『近代建築思潮』(1924), 상기 「建築論」, 『實用建築講座 第1卷』(1935)의 한 파트인 「現代建築」 등이 여기에 유용한 출판물이었다.<sup>21)</sup> 서구 근대건축에 관한 일본 최초의 통사적 단행본으로 유의미한 『近代建築思潮』가 결론에서 1920년대 초까지의 표현주의를 최신 경향으로 소개했다면,<sup>22)</sup> 11년 후의 「現代建築」은 당대 건축의 경향을 표현주의 이후 기능주의 등을 거쳐 국제건축과 합리주의로 수렴하는 새로운 구도로 제시했는데,<sup>23)</sup> 둘 사이의 「建築論」은 “표현주의로부터 기능주의적 모더니즘으로 이행”하던 당시 상황 및 구라타의 지향점이 표출된 이론 텍스트다.<sup>24)</sup> 구라타의 「建築論」은 ‘건축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라는 부제를 달고 있으며, 본문은 ‘1. 건축과 철학적 이론의 관계’, ‘2. 건축이란 무엇인가의 문제’, ‘3. 사고의 방법: 현재의 건축관과 그 실제’, ‘4. 세계감정을 담은 신형식의 관념’, ‘5. 건축미학 창설에의 기대’로 나뉜다. 박길룡의 1~2회차 글은 구라타의 1장에서 가져왔고, 3회차는 2장,<sup>25)</sup> 그리고 4회차는 3장의 일부와 4장에서 발췌한 것이다. 2-3절에서 이미 「현대와 건축」이 상당히 전문적이면서도 논리 전개의 산만함과 부자연스러움을 내포한다고 지적했었는데, 이는 딱딱한 이론 서술을 발췌해 잇는 과정에

서 나온 것이기도 하고, 구라타의 텍스트 자체가 다소 산만한 데에서 온 것이기도 하다.<sup>26)</sup> 그리고 간혹 오역 혹은 오탈자가 중요 개념의 이해를 방해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것이 전술했던 형태 방법론 네 번째의 ‘동물인 것’이라는 표제어다. 이는 구라타의 ‘動的なもの’의 오역으로, ‘もの’를 ‘物’로 보며 생긴 착오일 것이다. 기능주의 건축론에서 생물학적 유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박길룡의 ‘동물인 것’은 그에 대한 과한 직유가 아닐까 진지하게 고려될 수도 있지만, 이는 단지 구라타의 ‘동적인 것’을 잘못 옮긴 것에 불과하다.

이처럼 박길룡의 건축론 텍스트는 대부분이 문장 대문장으로 일본의 선행문헌을 그대로 따온 것이임이 확인된다. 참고문헌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이런 글쓰기는 당시 관행일지 모르나 그의 글이 갖는 치명적인 한계이며,<sup>27)</sup> 여기서 박길룡 건축론의 독창성을 논할 여지는 희박하다. 일단 우리는 그 한계를 직시하고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서론에서 언급했듯, 그런 한계를 인정한 위에 거둘 수 있는 의의를 찾아야 할 것이다. 그 의의는 다각도로 논할 수 있으나 핵심은 단순하다. 그것은 돌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자신이 옮긴 글에 따라 박길룡이 이해하고 그로써 자신의 건축론을 형성했을 것이라는 당연한 사실이다. 그가 옮긴 글 모두를 충분히 내면화했는지의 여부는 별도의 문제로 하더라도 말이다.<sup>28)</sup> 다만 「현대와 건축」의 경우 박길룡은 구라타의 건축론을 모두 수용하지는 않음을 시사함으로써 모호함을 남겼다. 당시 일본과 조선의 콘텍스트가 매우 다르니 건축론의 차이는 (특히 세부 사항에 있어서) 당연할 텐데, 기능주의를 향한 대체적 흐름은 공유했을 것이다. 그의 경성건축 비평의 맥락이 그러하며, 그가 구라타의 건축론을 대부분 그대로 옮긴 이유다. 「기능 100%의 건축형태」도 이를 입증한다. 둘째는, 박길룡이 그 건축론을 바탕으로 경성건축에 대한 비평을 시도했다는 사실이다. 이 두 가지와 관련해 다음 절과 다음 장으로 논의를 이어가자.

20) 추가로, 경성건축을 논한 후의 문장 “완전한 과학적 교양을 가진 무의의적 예술가 기계기사의 작품인 훌륭한 조각품인 기관차나 자동차[에 감동하는 미가 없다]”도 구라타의 텍스트 4장에서 온 것이다.

21) 이 세 저작에 나타난 구라타의 건축관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시오. 矢木敦·大川三雄, 「藏田周忠の論考にみる『近代建築』觀の推移について」, 『日本建築學會學術講演梗概集』, 1999.9, 351~352; 龜野晶子, 「藏田周忠の建築思想の獨自性」, 『デザイン理論』 58号, 2011, 49~63. 한편, 그는 『國際建築』에 「國際雜記」(1928.12~1931.9)를 연재하며 해외 동향을 소개했는데, 그의 유럽 견학(1930.3~1931.6)도 이 잡지의 ‘해외통신원’ 자격이었다. 矢木敦·大川三雄, 「藏田周忠の海外渡航(1930~31)と執筆活動について」, 『國際建築』誌への連載を中心とする考察, 『日本建築學會學術講演梗概集』, 1998.9, 347~348.

22) 결론의 제목은 「輓近建築主潮の傾向」이다. 이 책에 대해서는 김현섭·김제연(2023)이 주28에서 간략히 다룬 바 있다.

23) 여기서 구라타는 ‘기능주의’와 ‘합리주의’의 구분 등 아돌프 베네(Der moderne Zweckbau, 1926)의 관점에 의존하면서도 둘을 시간적으로 떼어놓고 본 구도가 독특하다. 그러나 기능주의 장(25~28쪽)과 구분된 합리주의 장(80~81쪽)에서도 기능주의를 함께 다룬다.

24) 矢木敦·大川三雄(1999), 앞의 글.

25) 엄밀히 말하면 구라타의 2장 첫 문장까지가 박길룡의 2회차에, 구라타의 3장 넷째 문장까지가 박길룡의 3회차에 옮겨졌다.

26) 이 글은 녹취된 강의를 옮긴 것이 아닐까 추측되기도 하는데(아니면 최소한 ‘말’을 전제로 작성된 강의록일 수 있다), ‘글’만을 염두에 뒀다면 엄밀한 논리로 훨씬 명료하게 서술될 수 있었을 것이다. 추측의 근거로는 19쪽의 다음 문장 등이 있다. “제군은 최근의 건축사조가 어떤 방향에서 아름다움을 표출하는지 [...] 이 강좌의 「最近建築樣式論」에서 배웠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 언급된 「最近建築樣式論」(石本喜久治·岡田孝男)은 『アルス建築大講座 第1卷』(1926)으로 출판됐다.

27) 고유섭의 경우 ‘참고서’를 제시하기는 했으나 구체적 표시 없이 특정 문헌을 본론으로 그대로 옮겼다. 주14 참조.

28) 단적인 예로, 앞서 지적한 네 가지 형태론에 대한 소화 여부를 들 수 있다.



## 3-3. 박길룡의 기능주의에 대한 비판적 이해

본고는 1930년대 중반 박길룡의 텍스트가 일본 선행 문헌을 그대로 따온 것이라는 원천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2장에서 요약·분석한 내용을 그의 건축론으로 간주하며, 결국 그의 건축론이 3-1절에서처럼 기능주의로 귀결된 것으로 본다. 전술했듯 이런 입장은 「기능 100%의 건축형태」로도 지지된다. 우선은 이것이 일본 선행 문헌의 직접 번역과 무관한, 즉 그가 유일하게 직접 쓴 건축론 텍스트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설령 그 개념의 모체가 「현대와 건축」, 다시 말해 구라타의 「建築論」일 가능성이 크다 해도 그렇다.) 또한 이 글은 셋 중 제일 나중에 쓴 것이면서도 길이가 아주 짧아 그의 생각을 명료하게 드러낸다. 글 제목이 이를 잘 보여준다.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근대 기능주의의 표어가 여기 내포됐음은 이미 지적한 바다. 그렇다면 이제는 「박길룡의 건축론」에 대한 비판적 이해가 따라야 한다.

첫째, 박길룡의 기능주의 건축론에 대한 비판적 이해는 기본적으로 건축에서의 기능주의 자체에 대한 현재의 비판적 평가와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모더니즘 이후의 상황에서 ‘탈기능주의(Post-functionalism)’가 제기된 바 있으며(Eisenman, 1976), 근대 기능주의는 ‘허구’나 ‘신화’로 인식되기도 한다(e.g. Anderson, 1987; Benton, 1990). 에이드리언 포티(Forty, 2000)는 “우리에게 기능에 관한 ‘이론’ 혹은 이론들이 있다면 그것은 최근 만든 것이지, ‘기능주의’가 근대건축을 지배했다고 주장되는 시대의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다(p. 174). 기능주의의 토양이었던 근대과학 및 기계주의에 대한 환상이 사라진 지 오래인데, 그것은 기능-형태 일치 언설이 일종의 수사로 간주되는 상황도 맞물려있다.<sup>29)</sup> 박길룡의 기능주의 건축론이 둘 사이의 일치를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현대와 건축」(“기능 그대로의 형태” 등) 및 「기능 100%의 건축형태」에서 이미 본 바다. 따라서 현재적 관점에서 볼 때 박길룡의 기능주의 건축론은 과거의 진부한 이론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 기능주의에 대한 다층적 비판이 축적된 현재의 관점을 갖대로 1930년대 식민지 건축가가 간접 지식으로 형성한 건축론을 너무 쉽게 판단하는 것은 불공정해 보인다. 지식수준의 불균형이 심하기 때문이다. 그 불균형의 격차를 줄여, 당대의 시점에서 박길룡의 기능주의를 바라볼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겠다.

둘째, 박길룡의 기능주의 건축론이 당시 모더니즘의

일반적 건축론을 반영하는 게 사실이지만, 그즈음 가장 앞선 건축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매우 단순하고 피상적이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독일의 비평가 아돌프 베네(Adolf Behne, 1885~1948)가 1926년 『Der moderne Zweckbau』에서 선보인 견해가 기준이 될 수 있는데,<sup>30)</sup> 그는 여기서 모더니즘 가운데 혼동스럽게 인식되던 기능주의(Funktionalismus)와 합리주의(Rationalismus)를 명쾌하게 구분하고 각각에 정교한 비평을 가했다. 그에 따르면 기능주의는 주어진 목적에 가장 잘 부합하는 특수 해법을, 합리주의는 가장 많은 사례에 적용할만한 보편 해법을 추구하는 경향이다. 하지만 전자는 개별적인 것이 지나치게 과장될 위험성을, 후자는 모두를 도식적으로 환원할 위험성을 내포한다.<sup>31)</sup> 모더니즘을 기능주의와 등가로 여겨온 현재까지의 관례적 이해보다<sup>32)</sup> 훨씬 명료한 독법이다. 이런 베네의 건축론은 당대 일본에서 읽히고 번역됐다는 점에서 중요한데,<sup>33)</sup> 심지어 1929년 6월의 『朝鮮と建築』가 이 책의 핵심 챕터인 3장을 일부 번역해 실기도 했다.<sup>34)</sup> 하지만 박길룡의 건축론이 이 같은 정교한 건축개념을 담기에는 그가 처했던 상황이 너무도 적박했다고 하겠다. 1936년 「현대와 건축」의 저본이 근 10년 전 구라타의 「建築論」(1927)이었던 것도 한 원인이었다고 본다. 구라타는 「現代建築」(1935)에 와서 기능주의와 합리주의 개념에 베네를 의존하게 되는데, 박길룡이 이것을 읽었더라면 조금 더 진전된 건축론을 펼쳤을지 모른다. 당대의 가장 앞선 건축론이 유럽에서 일본으로, 그리고 다시 조선으로 건너오기

30) 이 저서는 근대건축의 기능주의와 관련해 당대 가장 탁월한 개념을 제시한 것으로 각광 받고 있다. 게티 연구소(Getty Research Institute)의 이 책 영역본(The Modern Functional Building, 1996)에 대한 로즈마리 하그 블레터(Rosemarie Haag Bletter)의 서론 및 포티(Forty, 2000)의 ‘Function’ 항목을 보시오.

31) 3장 전체, 특히 62~63쪽(Reprint: 1998)을 보시오. 베네는 대표적인 기능주의자와 합리주의자로 휴고 헤링과 르코르뷔지에를 든다. 그에게는 실용주의자(Utilitarist)도 별도의 카테고리인데, 이 부류의 건축가는 가장 실용적이면서도 경제적인 해법을 구한다.

32) Bletter, 1996, *op. cit.*, p. 9. 당대의 구라타도 「現代建築」(1935)에서 “바그너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 현대건축 전체가 광의의 기능주의”라고 서술했다(27쪽).

33) 예컨대, 이타가키(1930)는 베네를 “현대건축 사상(思想)의 계몽적 소개자”로 여기며 이 책을 인용했고(33~61쪽), 주23에 적었듯 구라타(1935)도 여기에 크게 의존했다. 세계 챕터로 구성된 이 책은 1930년 2~4월 『建築新潮』에 「現代の目的建築」이라는 제목으로 한 챕터씩 번역·연재됐다.

34) 3장 「Nicht mehr geformter Raum/ sondern gestaltete Wirklichkeit」의 서두가 경성고공 교수 노무라 요시후미(野村孝文)의 번역으로 「來べき建築(一)」라는 제목 하에 실렸는데, 계속 이어지지 못했다. (번역된 범위에 헤링의 기능주의에 대한 서술이 포함됐지만 합리주의와의 비교는 범위 밖의 내용이다.) 전체 내용 중 일부에 불과하나 일본 ‘내지’에서 출판된 『建築新潮』의 번역본보다 빠르다.

29) 라이트의 수사(주12) 및 기능-형태 관계를 비판 로버트 벤틀리의 말 “뭐가 뭐를 따른다고?”(Venturi, 1977, p. 19)를 떠올리자.

까지는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박길룡의 기능주의 건축론은 아마도 아주 일반적인 이해 위에, 개인적 가감을 거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구라타가 『近代建築思潮』(1924, 82~83쪽)에서 규정한 바를 통해 그때의 일반적 이해를 가늠해 볼만하다.

평서널리즘은 기능주의라고 번역되듯이, 자연과학이 배태한 건축의 주지사상(主智思想)이다. [...] 건축은 자연법칙에 따라 실용목적(實用目的)을 충당하기 위해 인류생활의 도구로서 존재한다. [...] 이는 근대건축에 있어서 의식적 노력의 하나로서, 제체선 이후 높이 제창된 건축물질관의 발전이다.

셋째, 앞의 두 관점과는 달리, 박길룡의 기능주의 건축론에 대한 비판적 이해는 그의 텍스트 자체가 결론처럼 말하고 있는 형태론을 대상으로 하지 않을 수 없다. 「현대와 건축」이 제시한 네 가지 형태 방법론이 사실 구라타의 생각이지만, 구라타 텍스트의 앞뒤를 잘라내고 ‘기능주의적 고찰’에 뒤이어 이 부분을 결론으로 편집한 이는 박길룡이다. 2-3절에서도 언급했듯 이 네 가지 방법론은 표제어(‘형태 그 자신으로써 생각하는 것’, ‘형태의 소박간명을 존중하는 것’, ‘강건한 표현을 사랑하는 것’, ‘동물[동적]인 것, 동적 표현에 향한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의미를 전달하지만 모호함이 없지 않다. 첫째와 넷째가 기능의 필연적 표현과 유기적 특성으로 설명되며 기능주의의 중심적 개념을 말하고는 있으나 표제어와 설명 사이에, 혹은 각 방법론의 구분에 엄밀함과 명료성이 떨어진다. 특히 둘째와 셋째가 그렇다. 각각에 대해 “허위가 없는 간명한 형식”과 “간단명료하고 [...] 허위가 없는 힘”으로 설명하고, 둘 모두에 대해 기계를 빗대면서도 자연의 재료를 거론하는 점 등 상호교차적 서술이 논리상의 혼동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구라타의 「建築論」이 내포한 비엄밀성에 따른 것이라 앞서 시사했는데, 박길룡이 이를 좀 더 주체적으로 재정리하지 않은 사실은 아쉬움이라 하겠다. 박길룡이 다소 거리를 뒀다는 구라타 건축론의 일부 내용에는 이 형태 방법론의 몇몇 세부 사항도 속했을 수 있다. 한편, 본고가 이 형태 방법론과 관련해 ‘기능주의 형태론’이라 표현한 것이 구라타의 텍스트보다 박길룡의 텍스트에 더 정확하게 부합함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박길룡의 편집이 원저에서는 여러 페이지를 건너뛰어 위치한 ‘기능주의적 고찰’(3장, 12쪽)과 이 형태 방법론(4장, 21~22쪽)의 맥락을 직결시켰기 때문이기도 하고, 박길룡의 「기능 100%의 건축형태」가 결국 ‘형태’를 지시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세 가지 측면에서 박길룡의 기능주의 건축론을 고찰함으로써 그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얻을 수 있었다. 그의 글은 개념 수용의 시간적 지체 및 이해 정도의 측면에서 크고 작은 한계를 보였지만, 건축론 개진 자체의 거시적 의미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것은 일제강점기 조선의 건축가가 당대 세계건축의 조류였던 기능주의를 수용하고, 이를 미래로 투사했다는 점이다. “기능 100%의 건축형태”가 ‘이상’이자 앞으로의 실제 ‘진로’일 수 있음을 제시함으로써 말이다. 그 같이 설정된 ‘이상’은 경성건축에 대한 비평의 기준이 됐다.

#### 4. 박길룡의 경성건축 비평

박길룡의 경성건축 비평에 대해서는 2장에서 간략히 언급한 바다. 1935년 10월의 「대경성 빨당 건축평」에서 그는 조선총독부 등 25개 건물에 대한 매우 초보적 수준의 논평을 선보였는데, 이듬해 8월 「경성 저명건축 비평」이라는 부제를 단 「현대와 건축 (4)」에서는 ‘역사적 기성양식’을 얼마나 벗어났느냐에 따라 건물을 네 단계의 범주로 구분했다. 이 역시 ‘비평’이라 하기에는 아직 초보적이지만, 한 해 전 아무 체계가 없었던 임의적 서술에서는 진일보한 셈이다. 이번 장에서는 후자를 중심으로 박길룡의 경성건축 비평에 대해 논하자.

##### 4-1. 역사주의에서 기능주의까지: 박길룡의 경성건축 네 범주

「현대와 건축 (4)」에서 경성건축에 대한 논의는 총독부청사 등 “역사적 유물의 고투”를 쓰고 있지만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갖는 건물로부터 시작된다. 박길룡은 ‘표면장식’과 ‘구조’, ‘기능’의 불일치로 인해 이런 건축을 ‘비과학적인 건축’이자 ‘시대착오’로 규정했다. 그 다음은 조선은행 등 역사양식을 띠되 “아직 현금과 같이 철근 ‘콩크리트’ 공작법이 없던 시대”의 건물 범주로,<sup>35)</sup> 박길룡에게는 더 이상 논할 여지가 없는 과거의 것이었다. 발전 단계상으로는 이 범주가 제일 먼저 거론됐을 법한데, 박길룡은 역사주의 외형과 근대적 구조가 불일치하는 총독부청사 등의 건물을 문제시 해 맨 앞에 배치하고 상대적으로 길게 서술했다. 셋째는 영보회사 등 다소간 구태를 벗었으나 “아직 기성양식에 배회”하는 건물 범주이고, 넷째는 중앙전화국, 간이보험과 등 “완

35) 한 연구(전병욱 외, 2006)에 따르면 조선은행(1907~12) 바닥 슬래브에는 철골로 지지되는 무근콘크리트가 사용됐는데, 철근콘크리트 구조가 본격 도입되기 전의 단계다.

전하게 역사 기성양식의 구태를 벗은 경쾌한 형태”의 건물 범주다. 이 범주에 대해 박길룡이 ‘기능주의’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지만 전체 글의 맥락상 그렇게 지칭할 만하고(여기서는 베네의 관점과 달리 모더니즘과 등가로 여겨온 관계적 의미의 기능주의를 뜻한다), 이런 유형이야말로 그가 지향하는 건축이다. 즉, 박길룡이 통람한 당대 경성건축은 역사주의로부터 기능주의까지 네 단계로 나뉘는데, 철근콘크리트 구조[RC조]의 유무도 중요한 기준이었다. 이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박길룡의 경성건축 분류, 「현대와 건축 (4)」(1936.8.1)

역사 기성양식	RC조	사례	비고
○	-	조선은행, 총독관저, (용산)석조전	역사주의
○	○	조선총독부, 경성역, 저축은행, 안전은행	역사주의
△	(○)	영보회사, 천대전생명, 야소교서회	부분적 역사주의
-	(○)	중앙전화국, 간이보험과, 미동보교	기능주의

그런데 기능주의가 박길룡의 지향점인 만큼 넷째 범주의 건물에 대해서는 더 주목할만하다. 중앙전화국과 간이보험과는, 2장에서 봤듯, 박길룡이 「대경성 빨딩 건축평」에서 이미 “합리적인 구조와 양식”을 근거로 “건축상의 일대 혁명”이라 상찬했던 사례였다. 현재의 명동 [本町 1丁目]에 건축된 경성중앙전화국(1934~35)은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4층 규모 건물로,<sup>36)</sup> 백색 타일을 부착한 외벽과 넓은 유리창, 그리고 평지붕 옥상의 철제 난간에서 모더니즘의 어휘를 잘 보여주는데, 특히 곡선으로 처리한 한쪽 모서리의 이미지가 인상적이다. 간이보험과는 지금의 세종대로 교보빌딩 부근[廣化門通 149~150番地]에 건축된 조선총독부 체신국분관(보험과)(1932~34)을 지칭한다고 생각된다.<sup>37)</sup> 이 건물도 경성중앙전화국처럼 철근콘크리트 구조, 백색 외벽 타일, 넓은 유리창, 평지붕 옥상의 철제 난간 등으로 구성된 전형적 모더니즘의 건축물이다. 모더니즘을 기능주의와 동의어로 간주해온 일반의 입장에서 보건대, 둘 다 기능주의 미학을 뽐낸다고 하겠다. 조선에 세워진 건축물 가운데 이처럼 역사주의를 완전히 탈피한 기능주의의 가장 이른 사례로 총독부 상품진열관(1929), 메이지제과 경성매점(1930) 등을 들 수 있는데, 경성중앙전화국과

간이보험과는 박길룡이 글을 쓸 당시 회자되던 최신의 사례였을 것이다.

하지만 박길룡은 두 건물의 역사주의 탈피와 “경쾌한 형태”를 높이 사면서도 다소간의 유보적 뉘앙스를 보임으로써 새로운 고찰의 여지를 남긴다: “무의의적 예술가 기계기사의 작품인 [...] 기관차나 자동차에 감득하는 미가 없다.” 르코르뷔지에의 ‘엔지니어의 미학’(Vers une architecture, 1923)을 떠올리는 이 문장을 적극 긍정한다면, 아마도 박길룡이 그의 개념을 ‘이상’으로 상정하고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한 이 건물들의 작품성을 비판한 것이라고 이해할만하다. 타일 마감 벽면도 근거 중 하나일지 모른다. 하지만 르코르뷔지에가 직설적 ‘기계 건축’이 아닌 은유적 ‘기계시대 건축’을 지향했음을(즉, 기계 그대로의 건축을 지향하지 않았음을) 감안하면,<sup>38)</sup> 이런 이해를 전제로 한 박길룡의 평가는 모순적이다. 결국 구라타의 텍스트를 가져다 조합한 이 문장에<sup>39)</sup> 어느 정도까지의 해석이 가능한지 의문인 것이다. 여기서는 박길룡 텍스트의 불완전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가 역사주의로부터 기능주의에 이르는 네 단계의 건축 범주를 설정하고 특정 사례와 함께 마지막 범주를 지향했다는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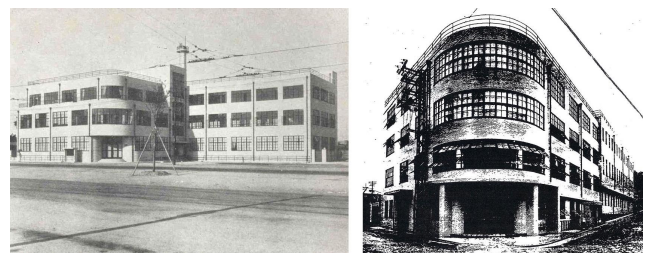


그림 4. 조선총독부 체신국분관(보험과), 1932~34 및 경성중앙전화국, 1934~35 (출처: 『朝鮮と建築』, 1934.6 및 1935.8)

#### 4-2. 고유섭(1932)과 홍윤식(1937)에 견준 박길룡의 건축평

박길룡의 경성건축 비평은 조선 건축계의 대표자가 서양 모더니즘의 견해를 바탕으로 당대 조선 땅의 건축을 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 그의 입장은 같은 1930년대, 경성의 건축을 평했던 다른 조선인들의 입장과 견줄으로써 더 또렷해진다. 하나는 고유섭이 「로시아

36) 朝鮮建築會, 「京城中央電話局新築其他工事設計概要」, 『朝鮮と建築』 14輯 8號, 1935.8, 23~27.

37) 朝鮮建築會, 「朝鮮總督府遞信局分館新築概要」, 『朝鮮と建築』 13輯 6號, 1934.6, 24~27; 이순우, 『광화문 육조앞길』, 서울, 하늘재, 2012, 310~316쪽.

38) 레이너 배넉(Bahnam, 1960)이 르코르뷔지에의 빌라 사부아(1929~31)와 벽민스터 폴리의 다이맥시온 주택(1927)을 건주며 테크놀로지를 직설적으로 표현한 후자에 손을 들어 줬음을 잘 알려진 바다.

39) 주20 참조.

의 건축」(1932.12)에서 경성 도처에 들어가는 “갑판·선실 같은 건물”에 대해 내비친 비판적 견해이며, 다른 하나는 홍윤식이 「근대건축예술사상의 동향」(1937.9) 말미에 덧붙인 경성의 ‘국제건축 작품’에 대한 논평이다.

우선, 고유섭의 문구는 “진 세계 건축계에 일대 충동을 일으켰다”며 언급한 르코르뷔지에에 대한 비판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그가 경성의 어떤 건물을 염두에 뒀는지는 불확실하나 시기상 전거한 총독부 상품진열관, 메이지제과 경성매점 등이었을 것 같은데, 그는 이런 유의 건축이 “기분적, 개인적, 낭만적, 분리적 예술”이라 반대한다. 대신 러시아의 도시 및 건축계획을 “역사적 근거, 사회적 근거, 관념적 근거에서뿐 아니라 확고한 경제적 근거에 입각한 탄력적, 귀납적 계획”이라 여기며, 이것이 “기술과 예술의 통합의 구체적 해결”을 목표로 한다고 높이 샀다.<sup>40)</sup> 고유섭이 ‘현대 신흥건축’ 내의 서로 다른 갈래를 인지하며 그 가운데 사회주의적 러시아 건축에 손을 들어준 것인데, 역사주의로부터의 탈피 및 RC조의 유무를 판단 기준으로 삼았던 박길룡보다 이론적으로 다층위적 견해를 가졌고 이념적으로도 뚜렷한 입장을 취했다고 하겠다. 그런 입장 차가 르코르뷔지에에 대한 찬반여부에도 부각된 셈이다. 고유섭의 비판적 입장과는 달리 박길룡이 르코르뷔지에의 ‘합목적성의 건축’을 긍정했고, 자동차와 기관차 같은 ‘기계’를 내세우며 르코르뷔지에적 뉘앙스를 질게 발산했음은 이미 본 바다. 결과적으로 고유섭에 견준 박길룡의 경성건축 비평은 상당히 단순한 구도로 파악된다고 하겠다. 현실 건축계에서 왕성히 작업했던 실무 건축가의 시각이 경성제대에서 미술사와 미학을 전공한 엘리트 지식인의 그것과 다른 자연스런 일이다. 물론 고유섭의 논평도 너무 짧아 구체적 사례나 논거가 결여됐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경성건축에 대한 홍윤식의 언급은 근대건축예술의 정점으로서의 ‘국제건축’을 서술한 맥락에서 나왔다. 그는 앞서의 ‘체신국분관(보험과)’로 보이는 체신국분소를 비롯해 동양극장, 약초극장, 단성사 등 24개 건물을 ‘국제건축 작품’으로 열거한다.<sup>41)</sup> 그러면서도 그중 “순

수한 국건양식”과 “국건양식을 얼마쯤 흉내만 내고 만 것”이 있다고 여기며, “질적(質的)으로 아름다운 건축미” 즉 “질적으로 순수미를 표현한 작품만을 국건작품”으로 본다고 간략히 평했다. 그에게는 이렇게 논할 건물이 경성에 들어선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었다. 홍윤식과 비교할 때, 그보다 1년 앞선 박길룡의 경성건축 비평은 구체적인 측면과 그렇지 않은 측면 모두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박길룡이 지향했던 기능주의 건축은 홍윤식이 그로피우스의 『국제건축(Internationale Architektur)』(1925)을 거론하며 제시한 ‘국제건축’에 비하면 구체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반면, 홍윤식이 어떤 특정 기준이나 설명 없이 그저 ‘질적’으로 “순수한 국건양식”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고만 피상적으로 말한 것에 비하면, 박길룡의 경성건축 네 범주는 뚜렷한 기준에 근거했다고 하겠다. 서로 다른 맥락에서 박길룡과 홍윤식이 경성건축을 다뤘기에 각각의 논평의 결이 달랐지만, 고유섭과의 비교에서처럼 두 사람의 배경도 그 차이의 인자였을 것이다. 실무 건축가와 건축학도의 차이 말이다.

## 5. 결 론

본고는 한국 1세대 건축의 대표자인 박길룡이 1935년과 1936년, 월간지와 일간지에 출판한 「대경성의 근대건축물 전망」, 「대경성 벨딩 건축평」, 「기능 100%의 건축형태」, 「현대와 건축」에 주목했다. 이 글들은 1930년대에 걸쳐 고유섭, 박동진, 홍윤식이 당대 서양의 근대건축운동을 소개했던 글들과 일부 맥을 같이하면서도 역사서술의 성격보다 이론적 성격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는데, 박길룡 스스로가 다수 출판했던 ‘주택개량론’을 넘어선 포괄적 ‘건축론’을 펼쳤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이런 인식하에 본고는 상기의 텍스트에 나타난 박길룡의 건축론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가 시도한 경성건축 비평의 양상을 살피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30년대 중반 박길룡의 건축론은 ‘기능주의’로 수렴하는 모습을 보였다. 1935년의 「대경성의 근대건축물 전망」과 「대경성 벨딩 건축평」에서는 ‘기능주의’라는 말이 덜 강조됐지만 1년가량 뒤의 「현대와 건축」(1936.7.29~8.1)에 와서 그의 논의가 ‘기능주의적 고찰’로 모아지며 그에 따른 형태 방법론을 제시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를 포괄하는 말이 “기능 그대로의 형태”라 하겠는데,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근대 기능주의 건축

40) 고유섭은 「신흥예술, 특히 첨단을 가는 건축에 대하여」(1931.1)에서 ‘현대 신흥건축’이 ‘아메리카주의’와 ‘소련주의’ 사이에 위치한다고 보면서도 후자를 긍정했었는데, 이런 입장이 「러시아의 건축」에 와서 훨씬 구체화됐다고 할 수 있다. 참고(2022) 참조.

41) 열거된 건물은 순서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遞信局分所, 東洋劇場, 若草劇場, 團成社, 任家벨딩, 九鼎商會, 金光堂寫眞館, 大久保眞敏商店, 鐘紡췌-비스:스테이션, 京城第一公立女子高等學校, 龍谷高等女學校, 商工獎勵館, 虎屋旅館, 朝鮮新聞社, ツツキ商會, 吉川商店, 失野吳服店, イワ洋行, 德力商會, 三國아파-트, 西大門郵便局, 小山田藥局本店, 新富座, 完永벨딩.

의 표어를 곧장 연상시킨다. 그리고 「기능 100%의 건축 형태」(1936.7.28)는 제목에서부터 그의 기능주의적 지향점을 명쾌히 드러냈다. 결국 박길룡의 기능주의 건축론은 일제강점기 조선의 건축계가 당대 세계건축의 경향을 수용해 표출한 이론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둘째, 그림에도 불구하고 박길룡의 텍스트는 일본을 통해 편집된 간접 지식이었다는, 즉 주요 내용이 적절한 표기 없이 일본의 선행문헌을 고스란히 발췌·번역한 것이라는 원천적 한계를 보인다. 「대경성의 근대건축물 전망」은 이시하라 켄지의 『都市建築造形理論への考察』(1929)에서, 「현대와 건축」은 구라타 치카타다의 『建築論』(1927)에서 내용 대부분을 가져왔다. 따라서 박길룡의 건축론에서 독창성을 논하기 어렵고, 지식수용의 피상성과 시간적 지체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이런 한계를 직시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박길룡이 「현대와 건축」의 경우 구라타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음을 시사했지만 대체로 자신이 옳긴 글처럼 이해하고 건축론을 형성했으리라는 사실에서 한계 속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는 그렇게 형성한 건축론을 바탕으로 (온전한 실현 여부와는 별개로) 작업하고 당대의 경성건축에 대해 논평했다.

셋째, 일본을 통한 간접 지식일지라도 박길룡의 텍스트가 그의 건축론을 보여준다면, 그 자체에 대한 비판적 이해가 따라야 한다. 박길룡의 기능주의는 우선 현재의 탈기능주의적 맥락에서 비판할 수 있고, 당대의 가장 앞선 건축론의 관점에서도 그렇다. 1920년대 아돌프 베네는 ‘기능주의’를, 다수를 위한 보편 해법을 추구하는 ‘합리주의’와 대비시키며 주어진 목적에 가장 잘 부합하는 특수 해법으로 여겼다. 이런 통찰력에 비하면 박길룡의 이해는 단순하고 피상적이었는데, 식민지 조선의 상황에서 그만큼의 이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1930년을 전후로 베네의 생각이 조선과 일본에서 번역됐음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대와 건축」이 ‘기능주의적 고찰’에 뒤이어 결론처럼 제시한 ‘형태 그 자신으로써 생각하는 것’ 등 네 가지 형태 방법론은 어느 정도 의미를 전달하지만 모호함도 크다. 구라타의 텍스트가 지닌 비엄밀성에도 기인한 것이지만 박길룡이 이를 주체적으로 재정리하지 않음은 한계다.

넷째, 전술한 건축론을 바탕으로 박길룡이 「대경성 벨딩 건축평」 및 「현대와 건축」에서 초보적이거나 경성건축 비평을 시도한 점은 의미가 있다. 특히 후자에서는 역사주의로부터 기능주의(로 통칭됐던 모더니즘)에 이르는 네 단계의 건축 유형을 설정했는데, 그의 지향점이

중앙전화국, 간이보험과 등 역사의 구태에서 벗어난 기능주의 건축에 있었음은 물론이다. 그의 서술은 르코르뷔지에의 건축을 ‘이상’으로 상정했던 것으로 보여, 고유섭이 「로시아의 건축」(1932.12)에서 경성에 들어가는 르코르뷔지에 식의 “갑판·선실 같은 건물”을 비판했던 것과 대비된다. 고유섭에게는 러시아의 사회주의적 건축이 추구해야 할 모델이었다. 한편, 홍윤식이 「근대건축 예술사상의 동향」(1937.9)에서 짧게나마 경성건축을 논하며 그로피우스의 ‘국제건축’을 기준으로 삼았던 것도 박길룡의 입장을 객관화시켜준다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1930년대 중반 박길룡의 텍스트에 대한 분석은 일제강점기 조선인 대표 건축가가 당대 세계건축의 경향을 어떻게 접하고 자기 건축론으로 내면화해나갔는지의 과정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데, 그 가운데 마주한 지식수용 및 표출 방식의 한계마저도 근대화 초기 식민지 상황의 제약을 드러내는 단면으로서 유의미하다. 이런 한계를 포괄한 의의는 고유섭, 박동진, 홍윤식 등의 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바로, 이들을 견주고 종합함으로써 일제강점기 조선 건축계의 지식형성 과정 및 상황이 좀 더 폭넓게 파악된다고 하겠다. 이 같은 건축계의 지적 양상에 대한 이해는 본고가 논외로 한 건축물에 대한 분석, 건축교육을 포함한 여러 사회적 제도 및 배경에 관한 연구와 상호보완하며 한국 현대건축의 초기 모습을 규명하는 데에 좋은 발판으로 작동하리라 기대된다. 물론 박길룡이라는 건축가의 작품을 고찰하는 데에도 기본 바탕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1. 蔡子雲(高裕燮), 「新興藝術, 特히 尖端을 가는 建築에 對하여 (1)~(4)」, 『東亞日報』, 1931.1.24~28.
2. 高裕燮, 「露西亞의 建築」, 『新興』 7號, 1932.12, 57쪽.
3. 朴東鎭, 「우리 住宅에 對하여 (1)~(16)」, 『東亞日報』, 1931.3.14~4.5.
4. 朴吉龍, 「大京城의 近代建築物 展望」, 『三千里』 7卷 8號, 1935.9, 129~133쪽.
5. 朴吉龍, 「大京城 벨딩 建築評」, 『三千里』 7卷 9號, 1935.10, 178~182쪽.
6. 朴吉龍, 「機能 100%의 建築形態」, 『東亞日報』, 1936.7.28.
7. 朴吉龍, 「現代와 建築 (1)~(4)」, 『東亞日報』, 1936.7.29~8.1.
8. 洪胤植, 「近代建築藝術思想의 動向」, 『朝光』 3卷 9號, 1937.9, 340~357쪽.
9. 전병옥 외, 「한국 근대초기 콘크리트 중층바닥의 출현시

- 기와 구조방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2권 3호, 2006.3.
10. 이순우, 『광화문 육조앞길』, 서울, 하늘재, 2012.
  11. 이경아, 『경성의 주택지』, 서울, 집, 2019.
  12. 서울역사박물관, 『화신백화점: 사라진 종로의 랜드마크』, 서울, 서울역사박물관, 2021.
  13. 김현섭, 「1930년대 초 고유섭의 ‘현대 신흥건축’ 인식」, 『건축역사연구』 31권 6호, 2022.12.
  14. 김현섭, 「보화각의 건축가가 박길룡이 아니라면?」, 『SPACE』 662호, 2023.1.
  15. 김현섭·김재연, 「1930년대 박동진과 홍윤식의 서양 근대건축운동 인식」, 『건축역사연구』 32권 1호, 2023.2.
  16. 濱岡周忠(藏田周忠) 編, 『近代建築思潮』, 東京, 洪洋社, 1924.
  17. 藏田周忠, 「建築論」, 『アルス建築大講座 第7巻』, 東京, アルス, 1927.
  18. 藏田周忠, 「現代建築」, 『實用建築講座 第1巻』, 東京, 東學社, 1935.
  19. 石本喜久治·岡田孝男, 「最近建築様式論」, 『アルス建築大講座 第1巻』, 東京, アルス, 1926.
  20. 石原憲治, 『都市建築造形理論への考察』, 東京, 洪洋社, 1929.
  21. 板垣鷹穂, 『新しき藝術の獲得』, 東京, 天人社, 1930.
  22. Adolf Behne, 野村孝文 譯, 「來るべき建築(一)」, 『朝鮮と建築』 8輯 6號, 1929.6 (*Der moderne Zweckbau* 3장 초입부 번역본).
  23. アドルフ·베-네, 仲田定之助·川喜田煉七郎 譯, 「現代の目的建築」, 『建築新潮』, 1930.2~4 (*Der moderne Zweckbau* 전체 번역본).
  24. 朝鮮建築會, 「朝鮮總督府遊信局分館新築概要」, 『朝鮮と建築』 13輯 6號, 1934.6.
  25. 朝鮮建築會, 「京城中央電話局新築其他工事設計概要」, 『朝鮮と建築』 14輯 8號, 1935.8.
  26. 藤森照信, 『日本の近代建築(下)』, 東京, 岩波書店, 1993.
  27. 石田頼房·昌子住江, 「石原憲治論’稿: 建築家·都市計畫家, 基督者石原憲治について」, 『總合都市研究』 55号, 1995.
  28. 矢木敦·大川三雄, 「藏田周忠の海外渡航(1930~31)と執筆活動について: 『國際建築』誌への連載を中心とする考察」, 『日本建築學會學術講演梗概集』, 1998.9.
  29. 矢木敦·大川三雄, 「藏田周忠の論考にみる ‘近代建築’觀の推移について」, 『日本建築學會學術講演梗概集』, 1999.9.
  30. 龜野晶子, 「藏田周忠の建築思想の獨自性」, 『デザイン理論』 58号, 2011.
  31. John Ruskin, *The Seven Lamps of Architecture*. New York, Dover, 1989 (1<sup>st</sup> ed., London, 1849).
  32. Otto Wagner, *Moderne Architektur*, Wien, Verlag von Anton Schroll & Co., 1896.
  33. Otto Wagner, *Die Baukunst unserer Zeit*, Wien, Verlag von Anton Schroll & Co., 1914.
  34. Adolf Behne, *Der moderne Zweckbau*, Munchen, Drei Masken Verlag, 1926 (Reprint: Berlin, Gebr. Mann Verlag, Berlin, 1998).
  35. Rosemarie Haag Bletter, ‘Introduction’, in: Adolf Behne, *The Modern Functional Building*, Santa Monica CA, Getty Research Institute for the History of Art and the Humanities, 1996, pp. 1-83.
  36. Frank Lloyd Wright, *An Organic Architecture*, London, Lund Humphries, 1939.
  37. Reyner Banham, *Theory and Design in the First Machine Age*, London, Architectural Press, 1960.
  38. Peter Eisenman, ‘Post-functionalism’, *Oppositions* 6, Fall 1976, republished in: K. Michael Hays, *Architectural Theory since 1968*, Cambridge MA, MIT Press, 2000, pp. 236-239.
  39. Robert Venturi, *Complexity and Contradiction in Architecture*, 2<sup>nd</sup> ed., New York, Museum of Modern Art, 1977.
  40. Stanford Anderson, ‘The Fiction of Function’, *Assemblage* 2, February 1987, pp. 19-31.
  41. Tim Benton, ‘The Myth of Function’, in: Paul Greenhalgh (ed), *Modernism in Design*, London, Reaktion Books, 1990, pp. 41-52.
  42. Kate Nesbitt (ed), *Theorizing a New Agenda for Architecture: An Anthology of Architectural Theory 1965-1995*, New York,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96.
  43. Adrian Forty, *Words and Buildings: A Vocabulary of Modern Architecture*, London, Thames & Hudson, 2000.
  44. Ken Tadashi Oshima, *International Architecture in Interwar Japan*,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09.

접수(2023.10.28)

수정(2023.12.19)

게재확정(2023.12.31)